

## 05.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 서구의 「삼분법」적 시대구분과 근대 역사학의 성립

: 「삼분법」(三分法)적 시대구분이란 이른바 고대→중세→근대라는 세 시기로 인류의 역사를 나누어 파악하는 인식방법 (ancient, medieval, modern age/era)

: 이런 인식은 서구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 르네상스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이상적」인 시대이며, 게다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인류역사상 대단히 특이한 발상의 소유자들이었음. (당시까지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로 올라갈수록 이상적인 시대라는 발상이 일반적. Ex. 그리스의 황금시대, 중국의 삼황오제).

: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원형(model)으로서 「고대」(그리스/로마)라는 또 하나의 이상사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 고대와 자신들이 사는 시대 사이의 사이의 시기를 부정적 뉘앙스를 듬뿍 담아 「중세」라 불렀다(dark age). 이러한 서구 르네상스 이래의 삼분법은, 19C에 들어와 서구에서 근대학문으로서 역사학이 등장하면서 대학교육을 통해 제도화됨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Marxism과 삼분법적 역사인식

: 한편 19C말에 등장하여 20C에 들어와 서양의 인문학 · 사회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Marxism 역시, 기본적으로는 상기 르네상스 이래의 삼분법적 역사인식을 답습함

: Marxism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모두 「원시공산제→고대 노예제→중세봉건제→근대자본주의→미래에 도래할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발전경로를 밟게 되는데, 이중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하는 상상된 두 시대를 제외하면 역시 본질은 삼분법임

- 서구의 시대구분법의 동아시아 유입

: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에게 있어, 근대 이전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의 기준은 왕조(일본의 경우는 군사정권=막부)의 교체였음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 서구의 시대구분법의 동아시아 유입 (계속)

: 19C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생존을 위해 급속한 서구식 근대화를 서두르게 되는데, 이때 이공계 학문은 물론 법학, 역사학 등의 인문계 학문도 유입됨

: 동아시아에서 서구근대의 역사학을 가장 빠르게 수용한 것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이었었는데, 일본은 이를 통해 자국의 역사도 서구의 그것에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전술한 삼분법을 자국사의 시대구분에 적용함

### • 일본사에서의 서구 「삼분법」 적용

: 본 학기 후반부에 상술하겠지만,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 쿠데타를 실행한 일본의 혁명세력들은 에도 막부가 채택하던 지방분권적 봉건제로는 서구 열강에 맞설 수 없으며, 이점이 「천황이 직접 통치」(=親政)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쿠데타를 실행한 이유라며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했음(=지배 정당성/명분의 확보)

### • 일본사에서의 서구 「삼분법」 적용 (계속)

: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일본근대)는 이제 천황의 친정(親政)을 회복했기에 이상적인 시대라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정치적 실권이 천황에게 있었던 일본고대를 당대(當代)의 원형(model)이라면서 칭송하기 시작함

: 그 결과, 서양의 중세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세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됨. 즉 서양의 중세가 인간의 이성을 교회가 억압했다 하여 르네상스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처럼, 일본의 중세는 천황이 아닌 무사들이 일본의 지배권을 「찬탈」했던 시대라 하여 당시의 일본 역사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러나 무사들이 지배했다 하는 일본중세는, 하나의 시대로 묶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존재. 즉 15C 중반~16C에 걸친 일본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경계로 그 앞과 뒤의 성격이 크게 달랐던 점이 그것임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 일본사에서의 서구 「삼분법」 적용 (계속)

: 전국시대 이후 등장한 무사정권인 에도(江戸) 막부(일명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지배기에는 무사들만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독점했음에 반해, 그 이전에 존재한 가마쿠라(鎌倉) · 무로마치(室町) 막부 지배기에는 무사들 이외에도 종교세력(신도/불교) 및 천황 · 귀족들도 무시 못할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

: 결국 당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전국시대 이후를 「근세」(近世: early-modern era)라 하여 별도의 시대로 나누고, 전국시대 이전까지를 중세로 명명하는 선택을 내림

: 이렇게 성립한 서구 삼분법의 일본식 적용인 사분법은 현재까지 일본 역사의 지배적 시대구분법으로 존재(1945년 이후를 「현대」로 별도 구분하면 5분법)

cf. 현재에는 서양사에서도 일부 「early-modern」이란 시기구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은 아님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 한국사와 중국사에서의 서구 「삼분법」 적용문제

: 전술한 것처럼 서구의 삼분법은 일본사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적용되었음. 그러나 한국·중국사에서는 이런 삼분법이 일본사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님

: 「고대」나 「근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역사학계에서도 비교적 의견대립이 적은 편이나(고대: ~삼국시대, ~당 왕조, 근대: 구한말~1945, 아편전쟁~1945), 일본사의 경우 이상으로 중세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존재(여기에 일본처럼 「근세」를 설정하면 더욱 복잡해짐)

: 중국사의 경우, 원(元) 이후의 이른바 (이민족)「정복왕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존재

: 일반적으로 한국·중국사에서 「중세적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지방세력의 득세, 성리학과 사대부 계층의 등장, 무인정권의 등장, 신분제 질서의 변동, 국가에서의 경제의 역할 증대 등인데, 그 구체상을 놓고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 한국사와 중국사에서의 서구 「삼분법」 적용문제 (계속)

: 애당초 메이지 시대의 일본, 그리고 20C 이후의 중국 · 한국 이 굳이 서구식 삼분법을 도입하려 애쓴 속사정은 (「과학」으로 무장한)서구 열강에 대한 위기의식 · 열등감 때문. 이후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런 의식은 상당부분 소멸

: 그 결과, 굳이 잘 들어맞지도 않는 삼분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 하에 기존의 왕조교체 중심의 시대구분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설득력을 얻기도 함.

: 그러나 서구식 삼분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각기 다른 역사적 현실들로부터 어떤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이를 통한 추론으로 다른 역사적 현실들을 이해한다는, 인식상의 편리함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과학적 사고임

: 그 결과, 현재의 한국 · 중국사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입장이 애매한 공존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 1.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

- 본 강의부분에 관하여

: 본 강의부는 그 성격상 맨 처음 강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COR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학사력의 거둬진 변경으로 결과적으로 고대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끝난 뒤에 집어넣게 되었다. (당초 비대면 강의기간이 2주였을 때 기준) 이 점에 관해 수강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 한편 본 보조교재의 내용은 강의자의 미발표 원고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본 강의 수강목적 이외의 사용(배부)을 금한다.

## 2. 과제

Q. 동아시아 삼국의 간략한 연표(중세~현대)를 만들어 보시오

: 동아시아 삼국의 시대구분에 대한 본 강의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대 이후의 한중일 삼국의 역사연표를 만들어 볼 것. 연표의 형식은 이미 배부한 보조교재들의 앞 슬라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참고연표」의 형식을 참조할 것. 연표 안에 왕조교체(일본의 경우 정권교체)와 서구식 삼분법을 동시에 구현할 경우,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연구서나 인터넷 상의 연표 이미지를 모방해도 상관 없으나, 이를 그대로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지함.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디까지나 직접 본인이 제작해 볼 것(+PDF 변환). 그리고 용지 한 면에 연표가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자신의 학번과 성명을 기입할 것